

새 책

▶ 빨간열매 (이지은 지음)=빨간 열매의 맛을 보고 더 많은 빨간 열매를 찾아 열심히 나무를 오르기 시작하는 아기곰. 무작정 올라가는 모습은 어딘가 어설피고 미련해보이지만 웃음이 난다. 빨간 열매를 찾아가는 곰의 여정은 단순하지만 때때로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한다. 둔하지만 확신에 찬 곰의 몸짓을 보며 무언가를 쫓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사계절. 1만2500원.



▶ 다다다 다른 별 학교 (윤진현 글·그림)=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나만 다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작가는 저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며 자기의 기준으로 들이대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노력하라고 말한다. 천개의 바람. 1만2000원.



▶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사라 톤드베리 글·그림, 이우진 옮김)=스웨덴 화가 베타 한손의 어린 시절을 그린 그래픽노블이다. 베타 한손이 일인칭 화자로 등장해 그의 감정과 생각들이 간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정희진 여성학 연구자는 추천사에서 "여성성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씩씩이 추구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산하. 1만3000원.



▶ 꿈을 꾸오 (키아라 로렌조니 지음, 김현주 옮김)=꼬물꼬물 물 뒤엎어 온종일 잠만 자는 강아지들부터 수많은 웃을 입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개와 이름을 잊어버린 개, 온종일 사각의 공간에서 주인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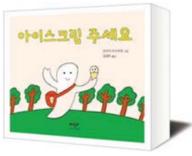


근하기를 꿈꾸는 개까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1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장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한 약속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게 한다. 분홍고래. 1만2000원.

▶ 수상한 나무들이 보낸 편지 (베르나데트 푸르키에 지음, 권예리 옮김)=개성이 뚜렷한 열여섯가지의 나무의 편지를 읽으며 자연스레 새로운 지식을 익히게 되는 과학 그림책이다. 나무에 대해 설명하다보면 동물 이야기가 나오고, 음식과 요리, 역사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세상의 어떤 나무도 홀로 살아가지 않고, 자연 속에서 다른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바다는 기다란선. 1만3000원.



▶ 아이스크림 주세요 (안자이 미즈마루 지음, 김영희 옮김)=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으로 국내에서도 사랑받는 작가의 새로운 그림책이다.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린 유령이 원숭이, 비둘기, 고양이, 코끼리 등 동물친구들과 꼭 닮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삽화는 어린 독자들도 따라 그려보고 싶은 만큼 단순명료하면서도 매력적. 미디어창비. 1만2000원.



오른쪽이 ejoj@ihalla.com

유배인이 시문에 담아낸 민란의 땅 제주

이용호 시문집 '청용만고' 현행복 번역 출간

1897~1901년 제주 유배 방성철·이재수의 난 목격 방애질소리 이여도 언급

나이 선어섯. 그는 유배지인 제주로 가기 위해 제물포(인천항)에서 배에 몸을 싣었다. 뱃머리에서 '이번 나들이가 광복(廣幅)임에 유자의 눈을 따갑게 함은, 남극성 보이는 변방 땅 끝으로 가야 하는 몸일세(今行板拓 嚴備眼 南極星 遊地 盡頭)'라고 노래했던 까닭이 있으리라.

마침내 당도한 제주에서 그는 낯선 방애질 소리를 듣는다. 금금증을 안은 그에게 관인은 말한다. "바다로 나가 돌아오는 자가 열마되지 않아 집을 나설 때면 가족들은 이여도(離汝島)로 떠나보낸다는 전승의 노래를 부르고 했습니다." 그는 "너를 떠나보낸 섬"이란 이여도란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 방애질 소리에 반복해 등장하는 이여도에 귀가 쏠린다.

구한말 제주 유배인 이용호(李容鏞, 1842~1905)는 시문집 '청용만고(淸濬漫稿)'의 자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청용만고는 '제주 사람

들의 방애질 소리를 듣듯이 부절없이 쓴 시문'이란 의미가 있다. 겸사의 말이지만 '청용만고'는 제주문화원이 번역 출간해 화제를 뿌렸던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淸史)'와 더불어 대한제국 시기 제주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속음청사'가 산문체로 당시 제주 사회를 드러냈다면 김윤식보다 8개월 여 앞서 제주에 유배됐던 이용호의 '청용만고'는 시문으로 20세기 전후의 제주 역사를 전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그에 뒤지지 않는다.

성악가이자 문화 기획자이면서 제주 향토 사료를 발굴해온 현행복 제주도문화진흥원장이 '청용만고'를 우리말로 옮겼다. 역주 작업에만 1년여 매달리는 등 세상에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다. 2권 1책으로 천편(天篇) 278수와 지편(地篇) 254수가 실렸던 한시집을 한 권으로 묶어냈다.

조선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이용호는 정부 전복 음모죄로 7년형의 제주 유배에 처해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짧은 4년여를 살다 떠났다. '청용만고'엔 1897년 3월 제물포에서 시작해 1901년 5월 제주 유배자들의



이도분산 명령이 떨어지 전라도 신지도로 가기까지 4년 2개월의 삶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가 제주에 머물던 때에 방성철의 난과 이재수의 난이 있었다. '청용만고'엔 그가 생존을 위해 감행한 처절한 몸부림 등이 행간에 숨어있다. '함께 공부하던 제자들에게 내보임(示露生)'류의 시도 여럿 있는데 이는 그가 학구열에 목말랐던 제주 유생들에게 한시작법을 교육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용호는 '굴회(縮會)'란 시모임도 만들었다.

역자는 "유배살이란 열악한 환경을 뒤로한 채 좌절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시작(詩作)으로 내공을 쌓는 존양의 법을 터득한 조선 선비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문예원. 7만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진정한 자유·행복 찾는 자신만의 날갯짓

이명인의 '갈매기의 꿈'과 다른책채 '굿바이'

1970년 출간과 함께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 진정한 날갯짓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의 모습은 참된 삶을 찾는 현대인들의 지향점이다.

2000년대 초반, 제주에서 창작활동하며 장편소설 '낙타'를 집필한 작가 이명인이 '갈매기의 꿈'에서 한걸음 나아간 이야기를 담은 '굿바이'를 냈다. 형편없는 비행 실력을 가진 유급생 피피가 자신만의 날갯짓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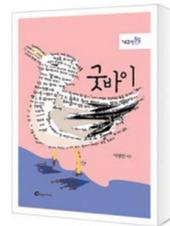
갈매기 조나단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완벽한 비행에 이르러 마침내 공중에서 사라진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마침내 성자가 된다. 그러나 '굿바이'의 주인공 피피는 세상의 모든 갈매기가 그의 말을 따를 때, 유일하게 의문을 던진다. '난다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나답게 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

까?' '자유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의 의문점을 피피는 자신만의 색깔로 찾아낸다.

하나뿐인 형제였던 주니를 잃고, 성자의 마을에 다녀온 피피는 극단적인 상황들을 직시한다. 그저 멋지게 날기 위해서 갈매기에게 필요한 물갈퀴를 제거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를 견디라고 말하는 조나단이 보여줬던 세상. 피피는 그런 세상을 등지고 자신만의 날갯짓을 완성한다.

피피는 '행복은 불행의 터널을 지나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자신의 감정과 감각에 몰두하며, 난다는 것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갈매기로 다시금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피피가 경험한 행복은 다른 갈매기들에게 사소하지만 온전한 구원이다.

저자 이명인은 보이지 않는 적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한다. '금기의 시대'가 지나고 모든 것이 가능한 '허



용의 시대'에서의 획일적 삶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보인다. 누구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권으로 적이 무엇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지정임을 직시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행복과 불행은 무엇인지, 진실과 거짓은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든 지금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참에 대한 통찰력을 선보인다.

'굿바이'는 청소년에게 삶과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바람의아이들, 9500원. 백금탁기자

이 책 '승정원일기 제주기사(현종대)'



승정원일기 제주기사는 조선 후기 제주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1차 사료다. 사진은 제주목역사 전경.

“제주목사 청렴 근면한 자 선임해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 유옥과 정의현감 김여한은 모두 본도 해읍(海邑)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이 섬으로 부임 받았으니 세상 논의가 모두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감 유옥과 정의현감 김여한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같이 임명할 것을 명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1665년(현종 6) 6월 10일 '승정원일기'의 한 대목이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溫故知新)’고 했던가. 350여년 전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제주 출신은 제주 수령에 임명할 수 없다는 상피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관리 임명의 원칙이었는데 제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제주목사는 '벌리 바다 너머에 있는 제주라는 고을이 불산이 매우 많아 평소애 이익이 되는 소굴'이어서 청렴 근면한 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제주목사와 제주판관은 문무관을 서로 잇달려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됐다. 목사나 판관 중 한 사람은 문관으로 임명해야 한

다는 말로 제주의 학문 권장과 더불어 소과 시행을 주관할 책임자 선임에 따른 거였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승정원일기'는 조선 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승정원의 일기체 기록을 일컫는다. 국왕의 동정과 국정 운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놓은 기록으로 정치의 주요 현안 자료나 지방에서 올린 상소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한 1차 사료다.

제주학연구원센터가 2016년부터 '승정원일기' 제주기사를 수집해 한문 원문, 한글 번역, 주석까지 보충한 역주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효종대 제주기사 발간에 이어 올해는 두번째 작업으로 현종대(1659~1674) 제주기사가 묶였다.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는 모두 합쳐 330건으로 같은 시기 '조선왕조실록'보다 그 수가 10배 가량 많았다.

그만큼 제주 역사를 풍부하게 다루고 있고 새롭게 드러난 내용도 보인다. 1673년 2월 19일 기사엔 제주목사가 당상관 정3품으로 임명된 사실이 쓰여있다. 당상관은 왕과 함께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관직이었다. 1672년 7월 14일 기사에는 한지 재료인 왜저(산닥나무)가 제주 진상품 목록으로 처음 확인된다.

역자 중 한 명인 홍기표 제주도문화재위원은 “왕대별 지속적인 역주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 역사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 관련 다양한 사실들이 '승정원일기' 제주 기사를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비매품.

전선희기자

제주의 파란하늘,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집 전기요금 “0”원 도전! 주택용 태양광



주택 지붕, 옥상, 마당, 주차장에 설치 5~7년 이면 투자비 회수

사업장 전기요금 “확” 줄이기 일반용 태양광



상가/사무실/공장/펜션/식당 전기요금 추가할인 정책 혜택

안정적인 “수익 보장” 사업! 태양광 발전소



토지 및 각종 건축물 옥상에 설치 은행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

직접 모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AS담당 ○명 경력자/차량소지자/자격증소지자 우대

제주솔라에너지

www.jejesolar.co.kr

742-5775

고품질 자재 / 정직한 시공 / 확실한 AS